2013 12. 8 대림 제 2 주일

제 1 독서 : 이사야서 11,1-10 <그는 힘없는 이들을 정의로 재판하리라.>
제 2 독서 : 로마서 15,4-9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여 주십니다.>
복 음 : 마태오 3,1-12 <회개하여라. 하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베이커스필드 성클레멘테성당 : 본당 주임신부 전흥식 요아킴

로마에서의 신학교 과정과 이스라엘성지순례를 마치고 본당으로 돌아오니 내집에 온것처럼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4 개월 정도의 길지않은 안식년을 보내면서 저에게는 한가지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사람사는것이 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왜 사람들은 삶을 힘겨워 하는 것일까요 ? 손으로 마음으로 무언가를 자꾸 움켜잡으려 하기때문이 아닐까요 ? 사람이 이 세상에 한번 왔다가 그렇게 가는 것인데, 기쁨도 고통도 그 삶의 일부분일 따름인데.... 그리고 한 순간일 따름인데.... 과거나 미래는 지나갔거나 아직도 오지 않은 것들인데.... 왜 거기에 얽매어 괴로워하고 두려워하는지 ? 내가 살고 있는것은 오직 현재뿐인데..... 그리고 이모든것들도

한순간 순간들일 따름인데 …. 그냥 내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사는것이 행복이 아닐까요 ? 코헬렛에서도 "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헛되고 헛되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말씀을 다시한번 깊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에서 있었던 저의 체험담 한가지를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교황님은 매주 수요일이면 성베드로성당 광장에서 일반인들을 알현하고 계십니다. 아시다시피 돌아가신 요한 바오로 2 세 교황님은 역대 어떤 교황님들보다도 대중들에게 인기가 높았던 교황님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외국인들에게는 인기가 높으셨지만 내국인인 이태리인들 에게는 그냥 그런 정도였었습니다만 지금 프란체스코 교황님은 이태리인들까지도 무척 좋아합니다. 오전 10 시에 이루어지는 교황님의 일반인들 알현을 위하여, 아침꼭두새벽부터 교황님을 뵙고자하는 사람들이 광장으로 물밀듯이 몰려드는데 물론 이중에는 중국사람들 한국사람들도 예외는 아니지요 . 그런데 이광장 한구석 에는 구걸을 하는 행려인들, 노숙자들이 많이 눈에띄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들에게 전혀 관심을 보이지를 않습니다. 이들은 주로 공산권에서 온 사람들인데 일자리가 없다보니 이렇게 노숙자가되어 구걸을 하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에는 많은 헌금들을 하면서도 이들에게는 눈길 한번 마추치지않고 외면을 해 버리지요 . 제가 안식년을 보내면서 다녔던 학교는 교황청에서 가까이 위치해 있었습니다. 하루는 저녁시간이되어 산보를 하다가 광장 한편에서 한 노숙자가 구걸을 하고 있기에 다가가서 저녁을 먹었냐고 ? '저녁을 안먹었으면 함께 먹으러 가자' 고 하였더니 자기는 돈이 없다고 머뭇거리기에, '아니 내가 사주겠다' 고 하며 근처 식당에 가서 둘이서 마주 앉아 저녁식사를 하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는 옛 러시아에 속해있던 공산주의 나라에서 일자리를 구하러 이곳에 와있는데 돈이 생기면 고국에 있는 식구들에게 보내주고 자기는 이렇게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그동안 이틀동안 식사를 못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누구냐고 자꾸만 묻기에 가만 있었더니, 혹시 신부가 아니냐고 되묻기에 그래서 그렇다고 하였습니다. 그는 나를 유심히 보더니 당신은 하느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천사인것 같다고 행복해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의 모습, 그의 행복해하는 눈빛을 을 보면서 희한하게도 저는 제자신이 행복해지는 것을 느낄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행복해진다는 것은 이렇게 단순한 것인데 왜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것일까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 1 독서 이사야서의 내용을 잘 보십시요. 이사야 예언자는 그날이 오면 이사이의 그루터기에서 햇순이 이 돋아나고 그뿌리에서 새싹이 움트며, 주님의 영이 그 위에 머물러, 늑대와 새끼양이 함께살며, 이제는 어떤 어려움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우리공동체도 그동안 많은 변화를 이루었음을 보게 됩니다. 서로 시기하지도 질투하지도 않으며, 서로가 아껴주는 공동체로 탈바꿈되어 아름다운

모습을 공동체안에서 보게 되어 제 자신도 흐뭇합니다. 실상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함께 살다보면 이런일도 생기고 저런일도 생기고 때로는 상처를 주기도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것들이 이 또한 우리 삶의 일부라고 받아들이면서 서로 이해하려한다면 공동체안에서의 삶이 훨씬 행복해질수 있을 것입니다. 마음은 그렇지가 않은데 몸이 잘 따라주지 않는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포기하지 말고, 우리가 좋은 생각을 꾸준히 가지다보면 언젠가는 몸도 마음을 따르게되는 변화를 이루게 될것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세례자요한은 "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광야에서 외칩니다. 이는 바로 이사야 예언자의 "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 ' 너희는 주님의 길을 마련하여라. 그분의 길을 곧게 내어라."하신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대림시기를 보내면서 오시는 주님을 잘 맞이할수 있도록 우리내면의 길을 바르고 곧게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 길을 곧게 하기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성사생활이 중요합니다. 미사와 고해성사를 통해서 내안에 깊이 패인 골을 메꾸고 굽어진 길을 곧게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하느님의 사랑과 은총으로 가득채워져 하느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주님의 평화를 간직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그는 힘없는 이들을 정의로 재판하리라.>
▥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11,1-10
그날 1 이사이의 그루터기에서 햇순이 돋아나고 그 뿌리에서 새싹이 움트리라. 2 그 위에
주님의 영이 머무르리니, 지혜와 슬기의 영, 경륜과 용맹의 영, 지식의 영과 주님을
경외함이다.
3 그는 주님을 경외함으로 흐뭇해하리라. 그는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판결하지 않고,
자기 귀에 들리는 대로 심판하지 않으리라. 4 힘없는 이들을 정의로 재판하고, 이 땅의

가련한 이들을 정당하게 심판하리라. 그는 자기 입에서 나오는 막대로 무뢰배를 내리치고,
자기 입술에서 나오는 바람으로 악인을 죽이리라.
5 정의가 그의 허리를 두르는 띠가 되고, 신의가 그의 몸을 두르는 띠가 되리라.
6 늑대가 새끼 양과 함께 살고,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지내리라. 송아지가 새끼 사자와
더불어 살쪄 가고, 어린아이가 그들을 몰고 다니리라. 7 암소와 곰이 나란히 풀을 뜯고, 그
새끼들이 함께 지내리라. 사자가 소처럼 여물을 먹고, 8 젖먹이가 독사 굴 위에서
장난하며, 젖 떨어진 아이가 살무사 굴에 손을 디밀리라.
9 나의 거룩한 산 어디에서도, 사람들은 악하게도 패덕하게도 행동하지 않으리니, 바다를
덮는 물처럼 땅이 주님을 앎으로 가득할 것이기 때문이다.
10 그날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리라. 이사이의 뿌리가 민족들의 깃발로 세워져, 겨레들이
그에게 찾아들고, 그의 거처는 영광스럽게 되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여 주십니다.>
▥ 사도 바오로의 로마서 말씀입니다. 15,4-9
형제 여러분, 4 성경에 미리 기록된 것은 우리를 가르치려고 기록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인내를 배우고 위로를 받아 희망을 간직하게 됩니다. 5 인내와 위로의
하느님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님의 뜻에 따라 서로 뜻을 같이하게 하시어, 6 한마음
한목소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느님을 찬양하게 되기를 빕니다.
7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기꺼이 받아들이신 것처럼, 여러분도 하느님의 영광을
위하여 서로 기꺼이 받아들이십시오. 8 나는 단언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느님께서
진실하심을 드러내시려고 할례 받은 이들의 종이 되셨습니다. 그것은 조상들이 받은
약속을 확인하시고, 9 다른 민족들은 자비하신 하느님을 찬양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입니다. “그러기에 제가 민족들 가운데에서 당신을 찬송하고,
당신 이름에 찬미 노래 바칩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회개하여라. 하늘 나라가 가까이 왔다.>
+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3,1-12
1 그 무렵 세례자 요한이 나타나 유다 광야에서 이렇게 선포하였다. 2 “회개하여라. 하늘
나라가 가까이 왔다.” 3 요한은 이사야 예언자가 말한 바로 그 사람이다. 이사야는 이렇게
말하였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 ‘너희는 주님의 길을 마련하여라. 그분의 길을
곧게 내어라.’”
4 요한은 낙타 털로 된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 띠를 둘렀다. 그의 음식은 메뚜기와
들꿀이었다.
5 그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요르단 부근 지방의 모든 사람이 그에게 나아가, 6 자기
죄를 고백하며 요르단 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 7 그러나 요한은 많은 바리사이와
사두가이가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독사의 자식들아, 다가오는 진노를 피하라고 누가 너희에게 일러 주더냐? 8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9 그리고 ‘우리는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모시고 있다.’고 말할
생각일랑 하지 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하느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녀들을 만드실 수 있다. 10 도끼가 이미 나무뿌리에 닿아 있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모두 찍혀서 불 속에 던져진다.
11 나는 너희를 회개시키려고 물로 세례를 준다. 그러나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더
큰 능력을 지니신 분이시다. 나는 그분의 신발을 들고 다닐 자격조차 없다.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12 또 손에 키를 드시고 당신의 타작마당을
깨끗이 하시어, 알곡은 곳간에 모아들이시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 버리실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